

200자 안내

PC? PC통신?

허병두 외 지음

PC통신을 잘 활용하면 컴퓨터 앞에서 뉴스·기상·문화·교육·오락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컴퓨터 문맹자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PC통신을 통한 컴퓨터 입문과 활용”에 대한 지침서이며, 93년 6월 1일자로 개편된 최신 하이텔(HITEL)메뉴의 내용과 500여개의 화면을 수록하고 있다. 집필과 정에서도 자료수집과 의견교환, 내용검토, 원고수집 등 “PC통신으로 공동 집필된 우리나라 최초의 PC통신책”이다.

신어림 / B5 / 478면 / 10,000원

그리고 봄날의 언덕은 푸르렀다

한수산 지음

「진흙과 갈대」에 이어 일본 체류를 끝내고 발표한 작가의 자전적 성향이 짙은 소설. 조각가인 주인공 장석우는 미술잡지의 기획연재물에 참여하여 춘천을 방문하는 동안 그곳에서의 2년에 걸친 젊은 시절을 회상한다. 강원도 벽촌에서 춘천교대에 진학한 그는, 자유로운 예술혼과 대립된 “2년의 교과과정을 마치면 초등교사가 된다”는 고정된 장래에 회의를 느낀다. 주인공이 자학과 방황을 거쳐 진정한 목표를 찾아가는 성장소설이다.

중앙일보사 / A5 / 274면 / 4500원

자녀교육에도 처세가 필요하다

찰스 세퍼 지음 / 이일남 옮김

자녀교육을 하나의 ‘업’으로 보고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한 기술 또는 처세술을 제시한 육아안내서. 저자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 발육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69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아이의 말을 듣는 법, 아이와 진정으로 의사소통하는 법, 가족간의 갈등을 조화로 이끄는 법, 아이의 고유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법 등을 명쾌하게 얘기한다.

장락 / A5신 / 254면 / 4500원

낮선 가면 (상·하)

다니엘 키이스 지음 / 박매영 옮김

24명의 다중인격이라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빌리 밀리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실화소설. ‘빌리 밀리건’의 몸안에는 학자·미술사·격투기의 달인·전기 기술자·화가·동성연애자 등 남녀 24명이 살고 있으며 각 인격의 탄생 당시부터 그들의 생각·행동·관계·비극적인 경험 등 완벽한 기억을 지니고 있다. 그는 어린시절에 겪은 아동학대의 희생자이며 다중인격속에서 끊임없이 자아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

세계 / A5신 / 각 346면 내외 / 각 5000원

99퍼센트의 사랑

김재진 지음

자신의 음악세계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지켜나가는 한 언더그라운드 가수의 삶과 사랑을 다룬 소설로, 과거를 회상하는 주인공인 스님이 삶과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구도적 흐름을 갖고 있다. 우리와 친근한 가수들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해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방송현장에서 10년이 넘도록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작가의 경험이 가요계 실상의 정확한 묘사를 돕고 있다.

삼진기획 / A5신 / 320면 / 5000원

울프 타임 (1·2)

조 고어스 지음 / 채혜원 옮김

「레밍턴 스틸」 「형사 콜롬보」 「코작」 등으로 친숙한 작가의 장편추리소설. 주인공 홀리스 플랫폼은 부인이 죽은 이후 미네소타 숲속 오두막의 은둔자로 살아가는 50대의 은퇴한 토목기사. 어느날 그가 사냥꾼이 손 총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서 ‘울프’의 본능적 감각으로 살인자를 찾아나선다는 게 줄거리. 플랫폼을 동물중에 가장 사냥을 잘하는 ‘울프’로 표현한 것처럼 사냥과 정치 분야에 대한 작가의 전문적인 기술이 돋보인다.

세터 / A5신 / 각 280면 / 각 4500원

죽어봐야 저승맛을 안다

이정섭 지음

우리 주위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참다운 삶을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방탕과 과소비를 일삼으며 비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 저자는 후자의 사람들이 가진 돈을 “생존의 수단인 아니라 향락의 수단”이라 질타한다. 또한 삶의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와 사회에서 부딪히는 벽, 그리고 인간의 지적 성숙 등 여러 문제를 웃지 못할 해프닝을 통해 보여준다.

문학과학실사 / A5신 / 348면 / 5000원

혼자 된다는 것은

할 라슨 외 지음 / 김정우 옮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상실감에 젖어 있는 친구를 위해 쓴 책으로, “약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강자에게 넓은 자양분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철학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 희망의 길을 안내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 상실감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는 이에게 큰 도움을 줄 만하다.

정암문화사 / A5신 / 168면 / 4000원

멋대로 살면 인생도 즐겁다

다카스 가쓰야 지음 / 박미옥 옮김

저자는 일본 다카스 클리닉 원장으로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건강과 인생에 대한 책을 기술하기도 하였다. 이 책에서는 독자들이 보 내온 편지나 엽서에 담긴 상담내용에 맞추어 스트레스와 무기력을 치료하는 방법, 여자에게 기증하는 남자에게 권하는 치료법, 마마보이 남편 등등 일상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하고 있다.

삼천리 / A5신 / 288면 / 4500원

소설 노자 (1·2)

진신성 외 지음

무위자연의 학설을 주창한 사상이 노자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 만물의 근원과 우주의 실체에 대해 접근하는 노자의 사상과 도가의 비조로 추앙받는 모습보다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그의 인간적 면모에 접근했다. 작가는 초탈한 초인의 모습보다는 인간 노자의 모습을 이야기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여강 / A5신 / 각 326면 내외 / 각 5500원

JIT를 잡아라

엘리 골드렛 지음 / 홍성완 옮김

일본의 적기 선적(Just-in-time) 방식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안해 미국의 생산경영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했던 저자가 비용회계 개념을 생산을 개념으로 바꾸는 의식개혁과 혁신적인 재고품 관리로 경영혁명을 달성하는 과정을 소설화했다. 공장장 알렉스는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경영자에게 최후통첩을 받고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하는데, 생산라인의 100% 가동은 재고만 누적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공장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들어간다.

새길기획 / A5신 / 408면 / 7000원

소설 반야심경 (전3권)

김영웅 지음

문둥이 아버지와 비구니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주인공 성수가, 스님이기 이전에 문둥이의 아들로 살아가다가 일류법대를 나와 입신양명의 기회를 버리고 깨우침을 얻기 위해 구도의 길을 간다는 게 이 작품의 줄거리. 작가는 선·교·울을 기본구조로 하여 세속에서 각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세 스님을 통해 반

야의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스님들의 참모습을 그리고 있다.

밀알 / A5신 / 각 300면 내외 / 각 5000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

이준우 지음

수화통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소외된 장애인 문제는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하나의 부차적인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견을 밝힌다. 교회에서의 장애인 선교 및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서 장애인 선교에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예찬사 / A5신 / 258면 / 4000원

창간호

삶터문학

[창간사] 창간의 보람을 자축하며(곽호중)
[좌담] 문학에도 유행이 있는가(이유식/이명재/홍신선)

[신작시특집] ▲난 외 3(황금찬) ▲꽃바람 노래 외 3(강정화)

[문학평론] 통일지향문학의 현황과 전망(임현영)

[장편소설] 달과 별(정소성)

[단편소설] ▲열목어를 찾아서(표성훈) ▲영겨드는 어둠속에서(김선주)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안혜숙)

[문학과 삶] ▲창녀촌 이야기(신규호) ▲노동자 소설의 문제(방인태)

[작가의 여인상] ‘관부연락선’의 서경애(정영진)

[초대기 9인선] 진중신/이추림/문효치/정민호/안학초/허윤정/김송배/김추인/임지현

[나의 체면 나의 작품] ‘황색인’ 역사를 바치는 우산 하나(이상문)

[중편소설] ▲어머니의 노래를 찾아서(곽의진) ▲바보들의 강(문승준)

사실뉴스신문사 / A5신 / 324면 / 4500원

격월간

녹색평론 (93년 7~8월호)

[논문] ▲삶의 진실(박경리) ▲농업두레문화만이 살 길이다(천규석) ▲환경위기와 경제학의 책임(박덕계) ▲자연과 공동육아(정병호) ▲생명의 형이상학(박이문) ▲나무와 맺은 인연(전우익) ▲녹색을 찾는 길(권정생) ▲오줌을 마시며 거북이의 행복을 생각함(이현주) ▲봄이 두려운 대산공단 인근 주민들(문승식) ▲생명에 대한 겸손(제임스 골드스미스) ▲소비사회의 극복(앨런 테인 더닝) ▲똥한집(존

버거)
[시] ▲늙은 풍각쟁이(민영) ▲유혹 외 1편
(하종오) ▲사과꽃 편지 외 2편(박두규) ▲어
느날 외 1편(김용락)
[서평] 신명 넘치는 농업사회의 회귀를 꿈
꾸며(이균형)—천규석 지음 「이 땅덩이와 밥
상」
녹색평론사/A5신/174면/3300원

계간지

茶心 (93년 봄 창간호)

[컬러화보] ▲한국의 계곡을 찾아(민병욱) ▲
다심 포토에세이(김종원) ▲축하 휘호(박권
흠) ▲다심 포토포엠(문상희) ▲다심 포토포
엠(김명지)
[다심시원] ▲김해 주촌면 내삼 관동대(박태
일) ▲광안리 어둠들면(안을현) 푸른 나무 아
래(김용택) ▲차를 마시며(송사헌) ▲한국의
보리밭(이성용) ▲창간사(김종우) ▲차문화
의 새 지평을(박권흠) ▲차 한잔의 사색(이성
용)
[다심 창간 기념특집 차문화 연구보고] ▲조
선왕실의 차와 물(김대성) ▲차생활 용어와
주체성(윤경혁) ▲중국 의홍 자사다호 감상
(안우섭) ▲말차 점다법(선근행)
[다심 창간기념 범부선생 추모 특집] ▲범부
선생과의 만남(이종후) ▲내가 모신 범부선생
(김동주) ▲내가 만난 범부선생과 호당스님
(신형로) ▲범부문고(김상무) ▲범부의 풍류
정신과 다도사상(김필곤) ▲수석과 시의 오솔
길에서(윤두천) ▲93년은 책의 해(김종우) ▲
도에 문화의 길(고성배) ▲고운 최치원(조영
조) ▲강정일당의 시문(조영조) ▲창간호 인
생(김필곤) ▲수서취미(박진일) ▲나의 애창
곡(김부득) ▲망중환(배영희) ▲다심소설(하
현욱)
다심사/A5/160면/2500원

반년간지

오늘의 시 (93년 상반기)

[좌담] 90년대 시의 탈정치성과 그 문제점(황
현산/김태현/김진수/박해현)
[오늘의 시인 김지하] ▲근작시 7편 수록(예
전에/다가소/무순/빗소리/저 먼 우주의/저녁
산책/겨울시편) ▲시인의 초상—생로병사속
의 김지하(김훈) 작품론—가위소리의 숨과 꿈
(임우기)
[상반기 총평] 이제는 돌아와 겨울 앞에 선
시인들(박해경)
[서평] ▲'미란다'의 늪에 갇힌 한 젊은 영혼
의 고독과 외로움—함성호 시집 「56억 7천 만
년의 고독」(김동원) ▲허무에 이르지 않는 절
망—김영석 시집 「썩지 않는 슬픔」(김이구)
▲검은 나무에서 흰 꽃으로의, 어두운 몸에서

투명한 눈으로의 연금술적 변환—이성복 시집
「호랑가시나무의 기억」(남진우)
[자료] ▲93년 상반기 발표 시 총목록
현암사/A5신/290면/4500원

오늘의 소설 (93년 상반기)

[좌담] 90년대 소설의 새로운 경향과 진정성
의 문제(김철/이창동/황국명/류보선)
[대담] 지식인 권력 진실—김소진의 「처용단
장」(우찬제)
[서평] 낙법과 메치기—이석범 지음 「권두수
선생의 낙법」(한만수)
[단편소설] ▲아름다운 얼굴(송기원) ▲환상
의 봄(이청해) ▲悲歌를 부르는 여자(김병연)
▲處容斷章(김소진)
[중편소설] ▲꿈꾸는 인큐베이터(박완서) ▲
騷父吟(최상규) ▲출구(정지아)
[자료] ▲93 상반기 발표 소설 총목록
현암사/A5신/324면/6500원

연간지

韓國文化 (93년호)

[논문] ▲훈민정음 신제론(이기문) ▲중간노
걸대연해의 연구(김완진) ▲19세기 후기 국어
의 연구(최명옥) ▲개화기 문체양상에 관한
연구(심재기) ▲조선전기 악부시 연구(박혜
숙) ▲정철과 박인로의 문학의식 대비연구(김
용직) ▲조선후기 중인층의 판소리 문학(이상
택) ▲「동야회집」의 세계관 연구(이강욱) ▲
조선후기 우화소설에 투영된 계층의 문제(민
찬) ▲6·25와 한국 전쟁시 연구(오세영) ▲
조선초기 산계의 구조와 기능(남지대) 이수광
의 학문과 사상(한영우) 조선 성리학의 전통
에서 본 송시열의 성리학 사상(이봉규) ▲18
세기 전반 명화적 활동과 정보의 대충책(한상
권)
서울대한국문화연구소/A5신/544면/비매품



일이 좋아 일을 찾아 즐기는

최병윤 부장의 야망

최부장은 아직 젊어서겠지요,
— 그는 올해 38세입니다.
그와 함께 일해보면
일에 대한 야망이 불꽃 같으니 말입니다.

하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책을 만드는 제작과정에서
컴퓨터·반도체·통신을 모르고는 만들 수 없는
정보산업시대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는 요즘,
고부가가치 출판과 완벽한 출판을 위해
최첨단 출판시스템(CPTS)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인재양성과 고도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를 두고
밤낮없이 고민하고 동분서주하며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의 이러한 야망이
하루속히 현실화되어
출판업계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의 야망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PTS(Colorful Publishing Total System)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최병윤 부장

컴피아트가 하는 일

- 편집 / 교과서 · 참고서 · 전문지 · 각종사전 · 어학교재 등
- 교열 · 교정 / 새로 개발한 '한글맞춤법 software'를 활용하므로 정확 무오합니다.
- 디자인 / 표지디자인 · 텍스트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레이팅 등
- 제작대행 / 조판 · 인쇄 · 인쇄 · 제본 등 책의 제작공정을 대행관리하여 납품해드립니다.

컴피아트의 시설

- 편집입력기 15대
- 레이저 프린터 2대
- 영문 전용출력기 2대
-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 영문 전용출력기 1대

지식산업의 파이오니어 **컴피아트**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87-1
TEL : 732-8274 · 738-8622~3
FAX : 739-9356 MODEM :